



#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의 필요성 검토

최장훈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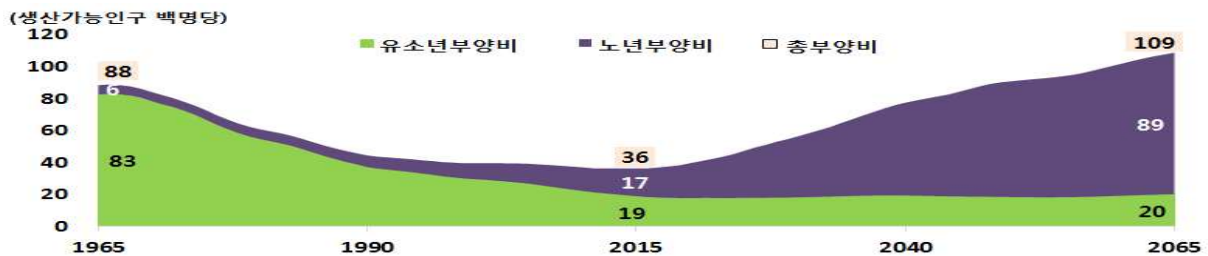
요약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Automatic Adjustment Mechanism)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함. 자동조정장치는 크게 연금급여, 은퇴연령, 그리고 보험료에 적용할 수 있는데, 국제통화기금은 은퇴연령이 기대여명 변화에 연계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함. 은퇴연령이 기대여명에 연계되는 자동조정장치는 기금고갈 시점을 지연시킬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재정안정화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구구조의 안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Automatic Adjustment Mechanism)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함.<sup>1)</sup>

- 아시아 국가들의 고령화 속도가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고 특히 한국의 노인부양비 상승률은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른 수준이므로 한국의 연금 재정 지출을 가속화시켜 연금 재정안정화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함(〈그림 1〉 참조).
- 또한, 급속한 고령화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함.
- 자동조정장치는 이러한 문제들을 반복적인 연금개혁 없이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함.

〈그림 1〉 우리나라 노년부양비



주: 노년부양비=65세 이상 인구 수/15~64세 인구 수  
 자료: 통계청(2016. 12), 「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

1) Elif C. Arbatli et al.(2016. 12), “Automatic Adjustment Mechanisms in Asian Pension Systems?”, IMF Working Paper.

■ 자동조정장치는 크게 연금급여, 은퇴연령, 그리고 보험료 조정장치로 구분될 수 있음.<sup>2)</sup>

-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연금급여가 임금(또는 물가), 은퇴 시 기대여명, 또는 연금 재정상태에 따라 조정되도록 만들어진 장치임.
  - 각각 임금(또는 물가)이 오르면 급여가 오르고, 기대여명이 늘어나면 급여가 낮아지고, 연금 재정이 악화되면 급여가 낮아지도록 조정되는 장치를 의미함.
- 은퇴연령 조정장치는 기대여명 또는 가입기간과 수급기간에 따라 은퇴연령이 조정되도록 만들어진 경우임.
  - 각각 기대여명이 늘어나면 은퇴연령이 늘어나고, 가입기간 또는 수급기간이 변할 경우 가입기간과 수급기간 비율이 일정해 지도록 은퇴연령이 조정되는 장치를 의미함.
- 보험료 조정의 경우는 법으로 규정된 재정안정화 수준에 연계된 경우로 재정이 재정안정화 임계 수준보다 낮아지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경우임.
  - 보험료가 올라간 경우 급여는 변하지 않도록 함.

■ 국제통화기금은 위의 세 가지 경우 중 은퇴연령이 기대여명 변화에 연계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함.

- 급여를 낮추거나 보험료를 올리도록 하는 자동조정장치는 급여수준의 적절성 문제와 세금 정책에 미칠 수 있는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음.
  - 특히 인구 구조나 경제 환경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러한 자동조정장치의 적용은 급여나 보험료 수준을 크게 변동시킬 수 있음.
- 이에 반해 은퇴연령이 기대여명 변화에 연계되는 자동조정장치는 기금고갈시점을 2~3년 연장할 뿐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 문제도 완화할 수 있음.
  - 기대여명이 늘어난 만큼 은퇴연령도 늘어나면 수급기간이 계속 늘어나지 않고 일정해지기 때문임.

■ 은퇴연령이 기대여명에 연계되는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기 어려우므로 보험료나 연금급여에 연계된 자동조정장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기대여명에 연계되는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의 기금고갈시점을 2~3년 정도 연장해 줄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2060년이나 2063년 기금고갈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짐.
  - 이 장치는 연금 수급 기간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므로 장래 기대여명이 늘어남에 따른 연금 재

2) Elif C. Arbatli et al.(2016, 12).

정약화를 막을 수 있음.

- IMF의 시뮬레이션 결과 국민연금의 기금고갈시점을 2~3년 연장해 주는 것으로 나타남.

- 보험료나 급여에 연계된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므로 재정안정화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연금 재정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보험료가 너무 높아지거나 연금급여가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으므로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을 위해서는 인구구조의 안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kiri](#)